

## 성대마비 회복의 예측인자 중 의미있는 후두근전도 검사소견

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

정은재\* · 편성범 · 백승국 · 우정수 · 권순영 · 김소연 · 정광윤

### 목 적

성대마비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으며, 특히 의인성으로 발생한 경우 회복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검사방법이 필요하지만, 이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. 이에 저자들은 성대마비의 예후 예측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후두근전도의 검사소견 중 성대마비 회복 예측에 가장 유용한 소견을 알아보았다.

### 방 법

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성대마비 진단을 받고 재활의학과에 의뢰되어, 한 명의 검사자에게 후두근전도를 시행받은 후 3개월 이상 추적관찰이 가능하였던 2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. 후두근전도의 시행 시기는 대부분 성대마비 발생 후 1~3개월째이었으며 근전도 검사소견 중 비정상 자발전위의 소견과 운동단위 활동전위(motor unit action potential)의 여러 변수를 분석하였다.

### 결 과

대상환자군은 남자 10명, 여자 17명이었고, 성대마비의 원인을 알 수 있었던 경우가 17례 였으며, 이중 수술 후 발생한 경우가 11례였다. 성대마비의 회복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성대마비의 원인( $p=0.005$ ), 후두근전도 소견에서 운동단위활동전위가 관찰되지 않은 경우 ( $p=0.05$ ), 세동전위와 양성예파(fibrillation&positive sharp wave) ( $p=0.05$ ), 그리고 점증양상(recruitment pattern) ( $p=0.024$ )이었다.

### 결 론

성대마비의 회복은 임상적으로 성대마비의 원인을 알 수 있었던 경우와 후두근전도 소견에서 운동단위활동전위의 소실, 비정상자발전위의 출현, 점증양상의 감소를 보인 경우 예후가 좋지 않았다.